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언론보도 토픽분석

이청민*·이슬아**

초 록

본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구조적 토픽 모형(Structural Topic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후 도출된 토픽을 통하여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의 4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에서 '돌봄'과 관련된 단어가 빈출하여, 맞벌이 여성의 자녀 교육 문제가 '돌봄 문제 해결'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돌봄 제도가 원활히 사용되고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긴급가족돌봄제도에 위기관리 경영기법(Contingency Plan)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갖춘 방안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 수혜자가 정책 문해력을 갖추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주제어 : 맞벌이 여성, 자녀 교육, 아동 돌봄, 토픽분석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mustudent@naver.com)

** 교신저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seula8733@kedi.re.kr)

I. 서론

어머니는 자녀에게 최초의 교육자이면서 생애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박옥순, 2010)로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은 어머니의 몫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당연시되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가구 당 맞벌이 비율은 2018년도에 46.3%, 2020년도에 45.4%에 달하여 유배우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정이나(통계청, 2022), 아버지의 자녀교육 참여도를 조사한 설문결과 일주일 평균 교육 참여시간이 2시간 6분으로, 어머니의 참여시간 6시간 7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베이비뉴스, 2017.03.27), 9세 이하 아동 가정의 육아 참여시간은 부부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1.12.15). 여전히 자녀교육에 관한 많은 책임이 어머니에게 전가되어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 주의’가 자리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손준중, 2009).

과거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직업이 학업성취나 자녀의 교육 포부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여(김일혁, 2006; 주동범, 2006), 여성에게 치우쳐진 자녀교육의 부담이 정당화되는 듯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맞벌이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되기도 한다(이준호·박현정, 2012). 이처럼 맞벌이 여성이 직업으로 인해 얻는 성취감 혹은 스트레스 또한 가정생활의 질을 좌우하면서 자녀에게 전이될 수 있다(임한려·홍성표, 2020). 그러므로 이들의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는 교육적 측면의 결과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그간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여성들이 일과 자녀교육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메워져 왔으나,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자녀 양육의 책임과 물리적 노동력이 여성에게 치우쳐진 근본적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제공했다. 초등학교와 미취학 아동의 코로나 19 확진 사례가 발생하여 수시로 아이들을 즉시 귀가하도록 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직장에서의 한두 번의 조퇴 신청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양육 스트레스는 외벌이 가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김성현, 2021), 여성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일과 가정 양립 측면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죄책감, 압박감, 고립감 등 부정적인 감정과 양육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Clark et al., 2020). 실제로 2021년 상반기 기준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17.4%에 달했다(통계청, 2022).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10명 중 6명은 출산과 육아로 퇴사를 고민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절반 이상이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 2021.09.13).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이 어머니의 전유물로 여겨지며 맞벌이 여성이 자아실현과 양육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시절의 전근대적 인식과 교육시스템에서 진일보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을 꿰뚫는 주제와 키워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비단 맞벌이 가정의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체의 질적 향상과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존의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업 여부나 학력에 따른 학업성취(전하람·임혜정, 2016; 송유진, 2013; 김일혁, 2006; 주동범, 2006)를 측정하는 연구나 학교적응에 관한 연관성(김지영, 이강이, 2020)을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갈등이나 일-가정 양립(최보운 외, 2022; 김성현, 2021)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맞벌이 여성보다는 가구 전체 측면의 어려움이나 돌봄 프로그램 이용 실태, 지원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맞벌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자녀교육의 이슈나 인식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연구 방법 또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거나 질적인 탐색을 주로 하여 사회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부족했으며, 여타 다른 교육적 영향에 관한 연구들보다도 적은 양의 연구가 수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절반에 달하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언론 기사에 나타나는 주요한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하여 파악하고, 도출된 토픽을 바탕으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과 성취에 필요한 밑바탕을 제공하고 그 자녀의 충분한 교육적 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 자녀교육’의 키워드와 관련하여 언론 기사에 나타난 사회적 이슈는 무엇인가? 둘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이러한 이슈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향후 맞벌이 여성과 자녀의 교육문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1.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주요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교육 전반에 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김일혁, 2006; 전하람·임혜정, 2016; 주동범, 2006). 특히, 저소득 저학력 여성의 특성이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고소득, 고학력 여성의 경우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지만, 가정배경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계층이 높은 여성도 자녀의 교육적 관여와 지원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전하람·임혜정,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지영·이강이(2020)의 연구에서도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 연구결과, 부모교육 참여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의 경우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직업을 가진 여성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 이는 경제활동 참여 여성은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학교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사회적 의식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최보운 외, 2022; 김성현, 2021). 위와 같은 연구가 주요 선행연구로 등장하는 것은 양성평등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현재 제2차 양성평등정책(2018~2022)이 운영되고 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2015~2017)의 세부 과제 중 제안된 ‘일-가정 양립 확산’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2018~2022)에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으로 확장하며 1차적으로 제안된 정책이 보다 보완되고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위의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김원정, 2021).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불러왔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화된 휴원, 휴교 등은 가정에 많은 영향

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으로 연결되었으며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이 아동의 교육, 보육, 돌봄 어려움, 심리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로 연결되었다(김성현, 2021; 성경하·고선강, 2020).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과 그에 따른 어려움, 우울감 등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최보운 외, 2022; 김영란, 2020).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특성과 자녀교육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의 보완인 돌봄 프로그램 이용 실태, 지원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책과 제도의 보완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삶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으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서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살피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쟁점과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언론 기사를 구조적 토픽 모형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 공하고자 한다.

2. 모성보호제도 정책 분석: 아동 돌봄을 중심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경제활동으로 여성 고용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정 내 가사 노동과 돌봄 수행 등에 남성보다 여성의 참여 시간이 높으며(연합뉴스, 2021.01.19.)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형태는 출산율 감소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준하는 임신,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와 같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중 자녀 교육과 연계가 높은 ‘아동 돌봄’과 관련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필요부처의 협력으로 운영되는데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성평등과 관련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 돌봄’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위의 정책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지원정책에 집중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보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제안된 결정 의제이며 정책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인구 규모 감소 등의 문제를 인지한 참여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며 저출산 완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김혜원, 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20)을 시작으로 유아 보육과 교육지원 확대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법과 제도적으로 틀을 구안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등과 같은 내용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탄력적 근무제도인 재택근무제, 시간근무제와 자녀 출산과 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거치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책임 강화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주요 정책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아동 돌봄 공백에 집중하여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영유아 돌봄은 아동 돌봄 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며, 초등 돌봄은 수요자 중심의 온종일 돌봄 정책을 운영하여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인프라 확대가 고용 친화적인 기업 시스템 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일·생활 균형사회기반 조성 정책의 제도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여성의 일·생활 균형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맞벌이 가정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돌봄서비스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온종일 돌봄교실’로 확대 운영 지원하는 등 학교 안과 밖의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 시스템의 질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아동 돌봄’ 정책은 현재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유아와 초등 돌봄 서비스로 세분화되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며 전체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여성’과 ‘교육’ 분야의 언론 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 분석

이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현상의 흐름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기에 언론 기사를 데이터로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는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언론 동향을 살피는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가 있으며, 언론 자료는 기초 자료로 사회적 관심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고 정책 집행과 운영에 활용할 수 있기에,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여성’과 ‘교육’에 대한 두 분야의 접근으로 언론 기사를 활용한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 분야는 언론 기사를 분석한 연구가 다양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활용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언론 동향 분석으로 사회적 현상의 흐름을 분석하며 경향성을 확인하고 정책의 의제 설정과 결정 및 집행 단계 등에서 대안과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하여 활용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김나영·홍미영(2021)은 교권침해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교권침해 현상과 정치적, 사회적 맥락이 연관성이 높음을 확인하였고, 유주영(2022)은 학생인권과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선거에 따른 정치적 변화, 정치적 갈등이 토픽에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재권(2021)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분야의 글을 수집하여 교육계의 쟁점과 이슈를 도출하며 교육 관련 이슈는 사회의 여론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여성 분야에서 언론 기사를 활용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교육 분야와 달리 언론매체의 정치적인 성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을 주로 살피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 관련하여 ‘젠더감성’, ‘결혼이주여성’, ‘유리천장’, ‘여성혐오’, 등의 키워드가 주요 주제로 제안되며 비판적 담론 분석과 언론 프레임 비교 분석 연구(김세은·김수아, 2007; 함승경·최지명·김영옥, 2019; 홍지아, 2010, 2022; 허명숙, 2007)와 같은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차별적 성 역할

과 가부장적인 모습 등이 담긴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 담론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실천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교육 분야는 교육 이슈가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가 공공의제로 형성되어 결정의제가 되고 난 이후, 정책 결정과 집행 단계에서의 언론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현상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 분야는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아, 젠더 갈등에 대한 이슈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며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교육적 측면에 집중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 주로 활용하는 언론기사 분석인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주요 사회적 이슈, 현상 및 현황 등을 확인하고 연구 대상인 ‘맞벌이 여성’을 교육 이슈와 문제에서의 현재 현상을 확인하는데 주요 대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구조적 토픽 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

토픽모델링은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비정형의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패턴, 정보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이청민·정제영, 2022; Adrian et al., 2016). 일관성 있는 주제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토픽을 추출하여 토픽 간 연관성을 분석하거나 문서별로 토픽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토픽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이슬아, 2022).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토픽 모델링 기법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을 채택하여 분석한다(김나영·홍미영, 2021; 심재권, 2021; 유주영, 2022; 이슬아, 2022).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은 문서에 특정 토픽과 단어가 잠재 디리클레 분포에 따르며 특정 문서에서 관측되는 단어가 토픽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확률적으로 관측됨을 가정하는 통계적 모형이다(김나영·홍미영, 2021). 구조적 토픽 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은 문서를 단어 자루로 인식하여 토픽의 단어의 동시 출현을 가

정하고, 단어들 간의 무상관성과 순서 없음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잠재 디리클레 할당 모형과 같은 전제를 가지나, 문서에 대한 메타데이터(meta-data)를 활용하여 토픽구조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Roberts et al., 2014), 구조방정식에서 매개변수의 역할과 같이 문서의 메타데이터가 잠재되어 있는 토픽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이청민·정제영, 2022; Roberts et al., 2014; Roberts, Stewart, & Airoidi, 2016).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언론 기사에 내재된 사회적 이슈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적 토픽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현상과 현황을 확인하는데 실증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분석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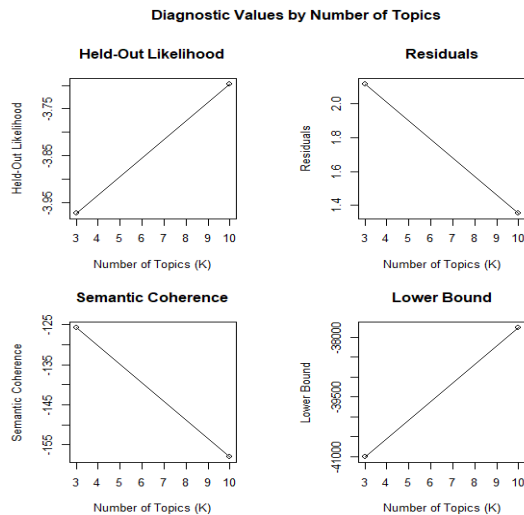
이 연구는 언론기사에 나타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토픽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언론 기사를 활용하였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자녀교육과 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시기를 포함하는 분석 기간의 설정이 팬데믹 상황이 불러일으킨 교육문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언론 기사는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http://news.naver.com>)에서 ‘워킹맘’, ‘자녀교육’의 키워드로 검색된 뉴스 제후 기사를 사용하였다. 검색 결과, 언론 기사에서는 맞벌이 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 ‘맞벌이 여성’ 보다는 ‘워킹맘’이라는 용어를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맞벌이 여성’으로 검색할 경우 기사 내용의 초점이 교육보다는 가구의 경제적 부분이나 가사노동 분배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기사를 수집할 때, 맞벌이 여성을 지칭하는 관용어인 ‘워킹맘’을 사용하였다.

검색된 기사는 총 75개 언론사의 1,073개 기사로 이를 Python 언어의 BeautifulSoup4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스크래핑하였으며 스크래핑 된 기사 중 중복기사, 기사의 내용 길이가 200자 미만인 포토뉴스, 워킹맘을 다룬 드라마 등을 언급하는 연예 기사를 제외하고 총 985개의 기사를 토픽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작성정보, 신문사별 고유문구 등이 포함될 수 있

어, 문서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제하기 위하여 R 언어의 KoNLP 패키지와 dplyr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정제된 문서는 명사만 추출하여 용어의 정규화와 불용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단어를 지칭하는 것, ‘아이돌보미’, ‘돌봄선생님’은 ‘아이돌보미’로, ‘선생님, 교사, 담임’ 등의 단어는 ‘교사’로 정규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지난해’ 등의 관용어구와 알파벳, 숫자는 불용어 처리하였다.

최종적으로 정제된 데이터는 R 언어에서 제공하는 구조적 토픽 모형(STM)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용 텍스트를 생성한 후 리스트형식의 stm 말뭉치로 변환하고, 데이터의 인덱스를 생성하여 주제 모형을 구성하였다. 토픽의 개수는 3개부터 10개까지 차례대로 대입하여 토픽과 대표단어를 도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먼저 구조적 토픽모형에서 모형을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held-out 가능도(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s), 의미적 응집도(Semantic Coherence)를 고려한 결과 held-out 가능도가 토픽 4개에 가까울수록 높고, 잔차는 반비례하여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으며 도식화된 지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토픽 모형 적합도

더불어 LDA를 기반으로 하는 토픽모델링에서는 연구자가 해석의 가능성과 내용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토픽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박한샘·김동현·장성주, 2019; Binkley et al., 2014; Grant, Cordy & Skillicorn,

2013), 각 토픽에서 나타나는 대표단어의 해석 가능성 또한 적절하다고 보았다. 토픽의 도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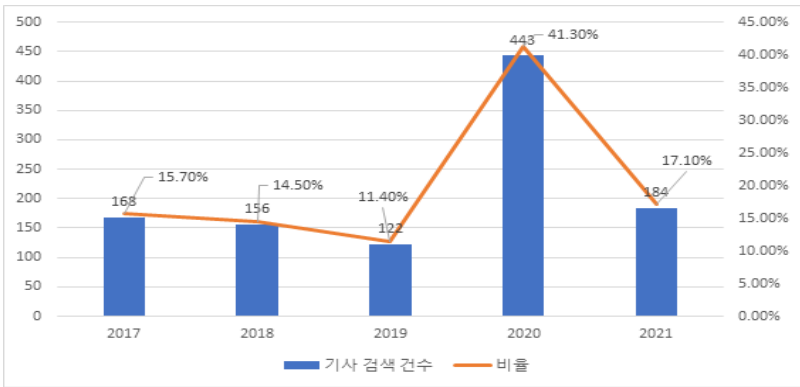


[그림 2] 토픽의 도출 과정

IV. 연구 결과

1. 언론 관심도

2017년부터 5년간 ‘워킹맘’, ‘자녀교육’의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된 기사 건수는 1,073건으로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검색된 기사 건수는 2019년에 가장 적고 2020년에 가장 많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기사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는 2020년 초 WHO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개학일 지연, 온라인 수업 등 맞벌이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자녀 돌봄 패턴이 붕괴된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또한 2020년의 기사 건수보다는 적은 양의 기사가 검색되나,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기사 건수보다는 다수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닌 이상, 맞벌이 여성의 자녀 교육과 관련된 고민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하여 가중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연도별 언론 기사 검색 건수 추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워킹맘’, ‘자녀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총 56개의 언론사에서 다루었으며, 분석 자료의 매체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자료의 매체 구성

언론사	기사 수	언론사	기사 수	언론사	기사 수	언론사	기사 수
뉴스1	72	한국일보	18	MBN	5	매경 이코노미	2
매일경제	65	한겨레	18	강원일보	5	블로터	2
헤럴드경제	56	머니S	18	전자신문	4	TV조선	2
서울경제	52	부산일보	17	중앙일보	4	조세일보	2
연합뉴스	45	YTN	15	채널A	4	코리아 중앙데일리	2
뉴시스	44	조선비즈	14	마이데일리	4	바른정당	1
한국경제	43	문화일보	13	ZDNet Korea	4	연합뉴스TV	1
이데일리	41	노컷뉴스	12	JTBC	4	코메디닷컴	1
아시아경제	41	프레시안	11	더팩트	4	신동아	1
파이낸셜 뉴스	40	한국경제TV	11	한겨레21	3	중앙 SUNDAY	1
서울신문	40	KBS	10	정책브리핑	3	TV조선	1
여성신문	37	데일리안	10	SBS Biz	3	일간스포츠	1
오마이뉴스	36	MBC	9	시사IN	3	주간조선	1
세계일보	36	디지털 타임스	7	스포츠동아	3	아이즈 ize	1
머니투데이	33	SBS	6	민생당	2	레이디경향	1
동아일보	31	매일신문	6	일다	2	기자협회보	1
경향신문	23	스포츠서울	6	미디어오늘	2	시사저널	1
조선일보	22	아이뉴스24	5	스포츠조선	2	한경 비즈니스	1
국민일보	19	주간동아	5	주간경향	2		

2.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토픽 분석

1) 토픽 분석 결과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관한 언론 기사를 구조적 토픽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4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의 포함단어는 해당 토픽에 단어가 출현할 빈도를 고려한 상위 10개의 대표단어(High Probability)와 단어의 출현 빈도와 단어가 해당 토픽에만 출현할 고유도를 동시에 고려한 FREX 단어 10개로 구성하였다. 각 토픽에 대하여 총 문서 중 해당 토픽이 대표 토픽 된 문서 수와 토픽 출현율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토픽은 <표 2>와 같다. 주요 토픽명은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2> 토픽과 포함 단어 및 대표 단어 출현율

구분	토픽명	포함단어	대표문서 수 (토픽출현율)
1	초등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도: 돌봄교실, 맞벌이, 교육청, 재택근무, 도시락, 방과후, 확진자, 불가피, 스케줄, 하소연 FREX: 돌봄교실, 재택근무, 도시락, 방과후, 교육청, 맞벌이, 맞벌이부부, 불가피, 실효성, 스케줄 	112 (0.152)
2	영유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도: 유치원, 아이돌보미, 맞벌이, 아이돌봄, 보육교사, 보호자, 죄책감, 안내문, 신학기, 불안감 FREX: 유치원,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보육교사, 보호자, 죄책감, 안내문, 신학기, 사각지대, 미취학 	118 (0.151)
3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도: 학부모, 온라인, 사교육, 마스크, 확진자, 저학년, 실시간, 공교육, 조부모, 불안감 FREX: 온라인, 저학년, 실시간, 마스크, 학부모, 피드백, 사교육, 자기주도학습, 공교육, 브리핑 	258 (0.282)
4	제도적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도: 육아휴직, 조부모, 어려움, 재취업, 출산율, 스트레스, 저출산, 분위기, 출퇴근, 유연근무제 FREX: 육아휴직, 재취업, 저출산,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경쟁력, 커리어, 임신부, 근로시간, 성차별 	470 (0.415)

토픽 1은 ‘돌봄교실, 맞벌이, 교육청, 재택근무, 하소연’ 등의 대표단어와 ‘돌봄교실, 재택근무, 도시락, 방과후, 실효성’ 등의 고유단어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문서 중 112개의 문서에서 대표 토픽으로 나타나고 0.152의 출현율을 보였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교육과 직장을 병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대체 근무안 등에 관한 내용과 이에 대한 평

가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와 어린이집의 등교 일정, 등원 일정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었던 학부모들의 상황을 ‘스케줄’, ‘교육청’의 단어에서 읽어볼 수 있으며 ‘불가피, 하소연, 실효성’ 등의 단어는 재택근무가 가능하더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고, 중소기업에서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 등의 사용도 원활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 필요하다(조선비즈, 2020.03.12)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토픽은 도출된 4개의 토픽 중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이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이전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은 돌봄 문제가 해소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픽 1은 ‘초등 돌봄’으로 명명하였다.

토픽 2는 ‘유치원, 아이돌보미, 맞벌이, 아이돌봄, 보육교사’ 등의 대표단어와 ‘보호자, 죄책감, 안내문, 사각지대, 미취학’ 등의 고유단어로 구성되었으며 대표단어와 고유단어의 구성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해당 토픽은 토픽 2에서만 출현할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출현하며 토픽을 구성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토픽 2는 118개 문서에서 대표 토픽으로 나타나며 0.151의 출현율로, 토픽 1과 근소한 차이로 가장 낮은 출현율을 보였다. 또한 토픽 1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여성의 ‘돌봄’이 아닌 ‘자녀교육’을 키워드로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관한 단어가 중점적으로 도출되고 있는데, 이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 여건조차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육아휴직 후 복귀,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시기,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 공백이 느껴지는 시기가 되면 맞벌이 여성의 95%가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오현정·황원형, 2019), ‘죄책감, 신학기, 불안감’ 등의 단어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취학 전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 보육교사’ 등의 단어와 연령을 나타내는 ‘유치원, 미취학’ 등의 단어로 구성된 토픽 2는 ‘영유아 돌봄’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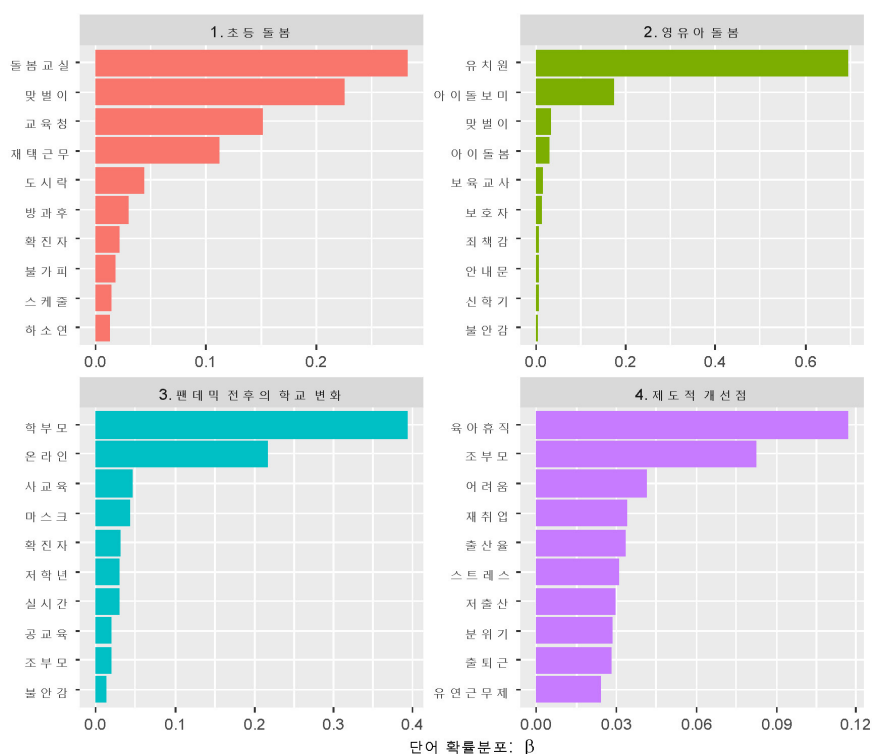
토픽 3은 전체 토픽 중 두 번째로 높은 0.282의 출현율을 나타내며 ‘학부모, 온라인, 사교육, 마스크, 확진자’ 등의 대표단어와 ‘온라인, 저학년, 실시간, 마스크, 자기주도학습’ 등의 고유단어로 구성되었다. 해당 단어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단계의 대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1학기 개학은 79일 동안 5차례의 연기 끝에 학교급에 따라 매일 등교, 격주 등교,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연합뉴스, 2020.05.19). 따라서 공교육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온라인 개학은 수업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발생하였다.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온라인 수업의 방식과 내용은 사교육업체를 찾게 하였으며, 과제관리 또한 어렵다는 우려와 부작용이 연일 보도되었다. 결국 온라인 수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부실 운영될 수밖에 없는 수업환경, 학생 수가 적고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학력 격차 또한 문제로 떠올랐다(연합뉴스, 2020.04.22). 위와 같은 우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온라인 수업 진행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출결 관리, 진도 체크, 태도 등 학생 관리’로 응답하였다(한국교육신문, 2021. 01.04). 그러므로 대표단어에 나타난 ‘학부모, 온라인, 마스크, 실시간’과 같은 단어는 교실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의 학교 변화를 나타내는 키워드로 볼 수 있으며 불안감, 피드백, 자기주도학습 등의 단어는 이러한 학교 변화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픽 3은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로 명명하였다.

토픽 4는 ‘육아휴직, 조부모, 어려움, 재취업, 출산율’ 등의 대표단어와 ‘육아휴직, 재취업, 저출산, 유연근무제, 성차별’ 등의 고유단어로 구성되었다. 해당 토픽은 0.415의 출현율로 도출된 4개의 토픽 중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며, 나머지 토픽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토픽이기도 하다. 상기된 3개의 토픽은 맞벌이 부부, 맞벌이 여성의 교육문제를 주제어로 도출된 토픽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보다는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대표단어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픽 4의 단어들은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육아휴직, 조부모, 유연근무제, 근로시간’과 같은 단어는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 또한 모두 지급되나 남성의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안 쓰는 회사 분위기, 승진·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20.01.04). 그 결과 전체 육아휴직자 중 75.5%는 여성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2017년 13.4%에서 10%가량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고용노동부, 2021.02.11), 여전히 이러한 분위기는 맞벌이 부부 자녀의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개인의 심리와 경력에도 영향을 끼치며, 여성의 육아시

간 부담이 높을수록 경력단절의 위험 또한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다(오은진·김소연, 2021). 그러므로 ‘어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단어는 ‘육아휴직, 조부모, 유연근무제’와 같은 현행 제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성이 처한 어려움을 나타내며, 이는 여성의 커리어 경쟁력 저하, 재취업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수반하며 결국은 국가적 저출산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토픽 4는 맞벌이 여성이 자녀교육에 있어서 처한 현실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토픽 4는 ‘제도적 개선점’으로 명명하였다. 각 토픽이 포함하는 대표단어의 출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토픽별 단어 확률 분포

2) 토픽 간 상관관계

토픽 간 상관관계는 한 가지 문서에서 특정 토픽이 출현하였을 때, 다른 토픽이 동시에 출현할 확률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4개의 토픽은 대부분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한 토픽이 출현하였을 때 동시에 다른 토픽이 포함될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 돌봄’과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에서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나, 한 가지 문서에서 ‘초등 돌봄’과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토픽이 동시에 출현할 확률이 낮은 확률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픽 분석을 통해 도출된 4개의 토픽 간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토픽 간 상관관계

토픽 명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
초등 돌봄	1	-0.050	0.038	-0.539
미취학 돌봄	-0.050	1	-0.271	-0.352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0.038	-0.271	1	-0.641
제도적 개선점	-0.539	-0.352	-0.641	1

3. 연도별 토픽 출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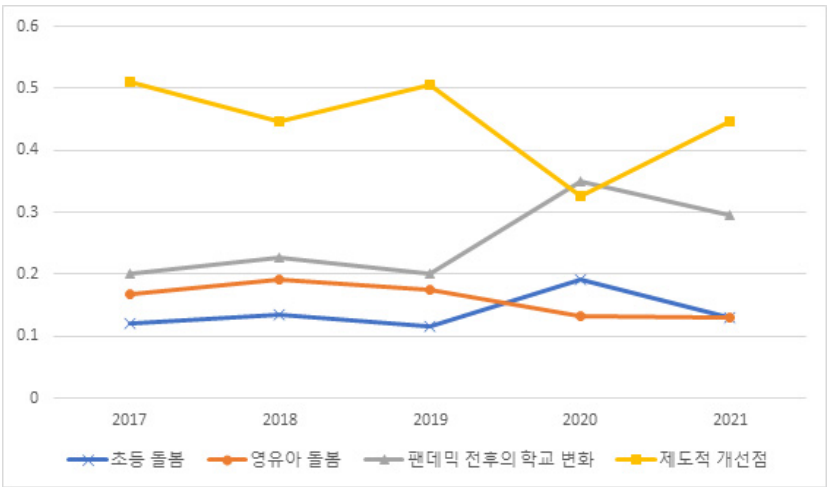
구조적 토픽 모형에서 메타변수를 연도로 설정하여 2017년부터 2021년에 나타난 각 토픽의 출현율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출현율을 나타낸 토픽은 ‘제도적 개선점’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 이는 언론 기사에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을 언급할 때, 토픽에서 나타나는 모성보호 제도의 원만한 운영, 경력단절과 재취업에 있어서 어려움 성차별 해소, 유연근무제 활용 등의 문제 등이 언급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이전인 2017년도부터 계속되는 높은 출현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토픽은 가장 가파른 상승을 나타낸 토픽으로 2020년에는 4개의 토픽 중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데, 2020년 초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이 선언되고, 등교 지연, 급격한 온라인 수업의 도입 등 기존의 교육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던 교육현장의 대처와 혼란이 다수의 언론 기사에서 다루어지면서 토픽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토픽의 출현율은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교육현장이 어느 정도 적응한 2021년의 출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4〉 연도별 토픽 출현율 추이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제도적 개선점
2017	0.120	0.169	0.201	0.511
2018	0.135	0.192	0.227	0.446
2019	0.116	0.176	0.201	0.507
2020	0.191	0.132	0.350	0.327
2021	0.129	0.129	0.295	0.447

‘초등 돌봄’ 토픽과 ‘영유아 돌봄’ 토픽은 비교적 완만한 출현율 추이를 나타낸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영유아 돌봄’의 출현율이 ‘초등 돌봄’ 보다 높았는데, 이 시기에 돌봄의 어려움은 영유아 단계에서 어려웠던 반면에 2020년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개학 연기, 등교 중지 등의 혼란과 여기서 비롯된 초등 돌봄의 어려움이 해당 토픽의 출현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기간의 연도별 토픽 출현율 추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도별 토픽 출현율 추이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언론기사에 나타나는 주요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방법 중 하나인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맞벌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그 자녀의 교육적인 측면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유의미한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대부분의 토픽에서 ‘돌봄’과 관련한 단어가 빈출하였다.

첫째, ‘초등 돌봄’ 토픽에서는 ‘돌봄교실, 맞벌이, 방과후, 스케줄’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돌봄과 관련된 단어와 ‘하소연, 불가피, 실효성’ 등 현 초등 돌봄 현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은 교육문제보다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 돌봄’ 토픽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돌봄 서비스에 관한 단어와 함께 이러한 현황에 우려를 표시하는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유치원,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보육교사’와 같은 단어와 함께 ‘맞벌이, 죄책감, 불안감’과 같은 단어가 함께 도출된 것은 맞벌이 여성의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현재의 돌봄 환경이 맞벌이 여성이 자녀교육과 사회생활을 병행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토픽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변화한 학교 상황에 관한 단어들이 도출되었다. ‘학부모, 온라인, 마스크, 실시간’ 등의 단어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학교 상황과 공교육 체계에서 사상 처음 시도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상황을 나타냈으며, ‘공교육, 불안감, 피드백, 자기주도학습, 사교육’ 등의 단어는 자기주도 학습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의 어려움, 수업결손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등의 현상을 반영하였다(한겨레, 2022.03.11).

넷째, ‘제도적 개선점’ 토픽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맞벌이 여성을 위한 제도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도출되었다. 현재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근로시간 조정, 조부모의 도움’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커리어 상의 경쟁력 저하, 스트레스, 재취업의 어려움’ 등은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토픽은 도출된 4개의 토픽 중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였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분석 기간 내내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여 여성의 사회적인 성취에 있어서 자녀의 양육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나타내는 토픽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돌봄 제도가 원활히 사용되고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토픽 분석 결과 ‘초등 돌봄’, ‘영유아 돌봄’ 토픽에서 공통적으로 ‘맞벌이’의 단어가 ‘하소연, 불안감,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도출된 것은 맞벌이 여성의 자녀교육이 영유아 시기와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제도 사용이나 근로시간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등(한겨레, 2021.07.19) 제도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다. 돌봄 서비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아이돌봄, 돌봄교실, 시간제 보육 등의 돌봄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2021년 보육실태조사에서도 보호자들이 1순위로 원하는 정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21), 돌봄 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화는 전통적인 기관에서의 돌봄 이외에 대체적인 돌봄 서비스 역시 갖추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조부모,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단어는 이러한 서비스가 부재했던 결과, 돌봄의 부담이 은퇴단계에 있는 조부모에게 전가된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충분히 공급하여 돌봄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한편 맞벌이 여성이 필요한 동선 안에서 원하는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 수요의 형태에 따른 촘촘한 돌봄 정책 설계와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성보호제도를 넘어서 가족 돌봄 자녀양육제도의 형태가 상황별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아동 돌봄 지원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 맞벌이 여성의 자녀 교육이 돌봄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으로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긴급자녀돌봄제도에 위기관리 경영기법(Contingency Plan)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갖춘 방안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 대응 등의 내용을 정보화하여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

분야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 극심한 돌봄 공백, 교육 공백을 불러일으켰다. ‘팬데믹 전후의 학교 변화’ 토픽에서 나타난 공교육, 불안감, 브리핑 등의 단어와 ‘초등 돌봄’ 토픽에서 나타난 ‘교육청’의 단어는 위기상황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브리핑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공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은 경제·절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 19 이후의 뉴노멀에 대한 대비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이 논의되고 있다(오마이뉴스, 2021.10.15.). 특히, 코로나 19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등의 재난으로 긴급 국가 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시대는 삶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유연한 정책 지원 대응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에 위기관리 경영기법을 적용한 실행력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위기관리 경영기법은 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영기법으로 2011년 일본 지진에서 도요타 기업의 대응이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매일경제, 2012.06.01.). 이러한 위기관리 경영기법을 긴급자녀돌봄 제도에 적용하여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정책담당자를 비롯하여 돌봄교사, 학부모와 같은 정책 수혜자에게 제도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운영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책 수혜자가 정책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변화를 이끌어 내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이 증가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이 필연적인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에 다양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와 돌봄 정책 등이 제도로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과 돌봄이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일·지향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ve)’의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다. ‘제도적 개선점’ 토픽에서 나타나는 ‘출산휴가, 임신부, 커리어, 재취업, 성차별’ 등의 단어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한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돌봄 정책 등 외형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여성은 초등 돌봄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전환기에 직장 퇴사를 결정하고 고민하는 등의 현실적 사각지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KB 경영연구소, 2019), 맞벌이 남성의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직장에서의 불이익 및 차별 사례 등으로 제도를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경향신문, 2022.02.11.). 이처럼 자녀 양육과 관련 부담 완화의 현장 대응 정책

이 제도화되어 문제해결 측면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일터에서의 사업주 인식과 성 평등 노동환경, 가정에서의 가사 분담, 아동 양육 분담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일터와 가정에서 모성보호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맞벌이 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아동 맞돌봄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 남성이 돌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중심 주체가 될 수 있는 남성의 돌봄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인 보완이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의 행태 변화를 수반할 수 있을 때 맞벌이 여성의 개인적인 경력과 그 자녀의 교육적인 부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성 평등적인 사회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육부와 정책행위자의 의견을 포함하고 정책에 대한 대중, 이익집단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 기사를 연구자료로 삼아 분석하였다. 이는 표집된 언론의 ‘무작위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실제적인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기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진 언론사의 기조 등에 따라 기사가 다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에 추후 맞벌이 여성과 자녀교육과 관계에 실제적 현상을 반영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22.02.11.). “좀처럼 늘지 않는 아빠 육아휴직, 무엇이 문제일까”.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202111443001>에서 2022.10.26.에 인출
- 고용노동부(2021.02.11.). “20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23.0%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 보도자료.
- 김나영·홍미영(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권 침해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교사교육연구*. 제59권 제3호. 475-486.
- 김성현(2021). “코로나 19 시대 영유아기 부모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3권. 375-390.
- 김세은·김수아(2007). “저널리즘과 여성의 이중 재현”. *한국언론학회*. 제51권 제2호. 226-255.
- 김영란(2020).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여성가족패널브리프*. 제60호. 1-7.
- 김원정(2021). “코로나19 이후 일·생활 균형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 높아 : 노동·돌봄 분야 양성평등 정책 국민인식 조사 결과”. *여성가족패널브리프*. 제71호. 1-7.
- 김일혁(2006). “어머니의 교육 수준과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학업성취”. *한국교육*. 제33권 제4호. 227-524.
- 김지영·이강이(2020).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초등학교 1 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학부모 관계의 상호작용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81-103.
- 김혜원(2010).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일가정 양립정책”. *월간 노동리뷰*. 제7호. 5-22.
-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_____(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_____(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_____(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매일경제(2012.06.01.). “컨틴전시 플래닝 (Contingency Planning) … 위기대응 비책 갖고 계십니까”.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2/06/334620>에서 2022.10.26.에 인출
- 문화일보(2021.09.13.). “워킹맘, “대한민국 육아환경 점수는 낙제 수준””.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913MW142856846878>에서 2022.08.30.에 인출.
- 박옥순(2010). “어머니의 자녀교육관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변형 영유아교육연구. 제4권. 5-25.
- 박한샘·김동현·장성주(2019).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반 스마트 시티 연구 동향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0권 제9호. 1839-1846.
- 베이비뉴스(2017.03.27.). “아빠가 자녀 교육하는 시간, 엄마의 1/3 수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971>에서 2022.08.30.에 인출.
-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조사 및 어린이집 조사 보고.
- 성경하·고선강(2020).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이 자녀돌봄요구: 서울시 강북구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손준종(2009). “자녀교육의 여성화에 관한 연구—어머니의 역할과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34호. 25-58.
- 송유진(2013).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비교”. 가족과 문화. 제25권 제3호. 31-53.
- 심재권(2021). “국민청원글의 토픽 모델링을 통한 교육이슈 분석”. 한국정보교육학회. 제25권 제4호. 633-640.
- 여성가족부(2016).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_____(2018).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2020.01.04.). “남성 직장인 70% “육아휴직 의향”...실제로는 여전히 어려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042071Y>에서 2022.09.07.에 인출.
- _____(2020.04.22.). “온라인 수업 방식·내용 학교마다 제각각...학력 격차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151600065>에서 2022.09.07.에 인출.
- _____(2020.05.19.). “코로나19로 79일간 5차례 연기 끝에...고교 3학년 내일 첫 등교”.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8121000530>에서 2022.09.07.에 인출.
- _____(2021.01.19.). “서울 여성 하루 가사노동 2시간 26분... 남성은 41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163500004>에서 2022.09.07.에 인출.
- 오마이뉴스(2021.10.15.). “기후위기 시대, 돌봄사회로 전환을 위하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 CD=A0002780300에서 2022.10.24.에 인출.
- 오은진·김소연(2021). “출산·육아기 모성보호제도 활용이 여성 경력단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제1호. 163-208.
- 오현정·황원형(2019). 한국워킹맘보고서. KB금융지주.
- 유주영(2022).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언론 보도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제60권 제1호. 205-234.
- 이슬아(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서울형혁신학교의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준호·박현정(2012). 맞벌이의 교육적 기회비용: 방과 후 자기보호(self-care)가 초등학생의 자기학습 통제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3.
- 임한려·홍성표(2021). “잠재이전분석을 활용한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전이 잠재 계층 및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제108권 제1호. 67-97.
- 이청민·정제영(2022).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책변동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과 토픽분석을 활용하여”. *교육정치학연구*. 제29권 제2호. 29-63.
- 전하람·임혜정(2016).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직업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적 관여 및 지원의 매개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26권. 141-169.
- 조선비즈(2020.03.12). “‘아이는 누가 보나요’ 어린이집 휴원 연장에 속타는 워킹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2/2020031201212.html에서 2022.09.15.에 인출.
- 조선일보(2021.12.15). “일하는 아빠 육아 참여, 평일 10% 주말 80%”.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12/15/26V2FFJBFZCWL0YEZ2HMPC5J5I/>에서 2022.09.15.에 인출.
- 주동범(2006).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자녀의 교육포부수준과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141-161.
- 최보윤·방지원·유성경·김수영(2022). “코로나 19 전후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 경험 변화와 부부 우울과 삶의 만족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7권 제1호. 3-32.
- 통계청·여성가족부. (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 통계청(2019). e-나라지표 국정 모니터링 지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5
- 통계청(2022). 지역별 고용조사.
- 한겨레(2022.03.11). “코로나 2년차에 사교육비 반등해 역대 최대…23조4천억

- 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34500.html>에서 2022.09.15.에 인출.
- _____(2021.07.19). “출산휴가 달랬더니 “퇴사해”...흔적도 없이 쫓겨나는 임신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04038.html>에서 2022.10.26에 인출
- 한국교육신문(2021.01.04). “새해 ‘원격수업 플랫폼·콘텐츠 다양화’ 시급”.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2977>에서 2022.09.15.에 인출.
- 함승경, 최지명, 김영옥(2019). “언론 보도의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 혐오 분석: 언어네트워크와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합”. *한국PR학회*. 제23권 제6호. 24-51.
- 허명숙(2007). “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문화*. 제7호. 5-45.
- 홍지아(2010).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의 다문화 담론: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12호. 644-678.
- _____(2022). “젠더갈등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요 담론이 되었는가?: 보수언론의 젠더갈등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7권 제2호. 99-155.
- KB경영연구소(2019).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 KB경영연구소
- Adrian, C., Sidi, F., Abdullah, R., Ishak, I., Affendey, L. S., & Jabar, M. A. (2016). Big data analytics implementation for value discover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Theoretical & Applied Information Technology*, 93(2).
- Binkley, D., Heinz, D., Lawrie, D., & Overfelt, J.(2014, June). Understanding LDA in source code analysis. In *Proceedings of the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gram comprehension* (pp. 26-36).
- Clark, S., McGrane, A., Boyle, N., Joksimovic., Burke, L., Rock, N., & O’Sullivan, K.(2020). ‘You’re a teacher you’re a mother, you’re a worker’: Gender inequality during Covid.19 in Ireland. *Gender, Work & Organization*, 28(4), 1352-1362. <https://doi.org/10.1111/gwao.12611>.
- Grant, S., Cordy, J. R., & Skillicorn, D. B.(2013). Using heuristics to estimate an appropriate number of latent topics in source code

- analysis. *Science of Computer Programming*, 78(9), 1663-1678.
- Roberts, M. E., Stewart, B. M., & Airolidi, E. M.(2016). A model of text for experimentation in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11(515), 988-1003.
- Roberts, M. E., Stewart, B. M., Tingley, D., Lucas, C., Leder-Luis, J., Gadarian, S. K., & Rand, D. G.(2014). Structural topic models for open-ended survey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8(4), 1064-1082.

Abstract

A Topic Analysis of Media Articles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Double-income Women

Lee, Cheongmin*·Lee, Seula**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working women by analyzing media articles related to the education of children of working women using the Structural Topic Model and then using the derived top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ur topics were derived: 'Elementary Care', 'Early Child Care', 'School Change Before and After Pandemic', and 'System Improvement' were found, and the words related to 'Care' were frequent in most topics, indicating that the problem of children's education of dual-income women was in 'Care Problem Solving'.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are as follows. Firs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the family care system, including dual-income women, is used smoothly and operates organically. Second, the emergency family care system should introduce a crisis management management plan to systematically implement it. Third, it is necessary to induce a change in the social atmosphere so that policy beneficiaries can have policy literacy.

Keywords : a double-income woman, child education, child care,
Topic Modeling

* First Author: Lecturer, Ewha Woma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